

항만 배후지역의 공간적 포용성 증진을 위한 도시설계적 방향성 제시에 관한 연구

황선아* · † 김종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후연구생, †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A Study on Urban Design Direction for Promoting Spatial inclusion in Port Area

Sun-Ah Hwang* · † Jong-Gu Kim

* Urban Engineering of National Pusan University, Busan, Korea
† Division of Urban Engineering, National Pusan University, Busan, Korea

요 약 : 도시공간은 기회와 안락함을 보장하는 행복한 공간인 동시에 가난과 배제, 추방이 진행되는 불행한 공간이라는 양면적 사실도 가지고 있다. 즉, 도시 내에서는 성장과 쇠퇴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항만공간 역시 항만산업의 성장과 쇠퇴현상이 항만 배후지역에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항만배후지역은 성장보다는 노후화된 이미지가 강한 실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는 항만공간에 대한 개발 및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거부터 현재까지 항만공간의 성장과 쇠퇴에 따라 밀려나듯이 만들어진 배후지역의 쇠퇴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용어 : 이중도시, 항만배후지역, 공간적 포용성, 도시설계

Abstract : The urban space has both aspects that the happy space that guarantees opportunity and comfort is an unfortunate space where poverty, exclusion and deportation proceed simultaneously. In other words, growth and decline are simultaneous within the city, and this phenomenon is more evident in modern society, which is getting more complicated. The harbor space is also affected by the growth and decline of the port industry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port area. However, since there is no systematic guideline for development and planning of port space in Korea, the phenomenon of the decline of the rear area, which is made up as if the harbor space has been growing and declining from past to present, is getting worse .

Key words : Dual City, Hinterland, Spatial Inclusion, Urban Design

1. 서 론

항만배후지역 즉, 항만공간과 접해있는 기성시가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항만산업의 부흥과 쇠퇴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공간이다. 국내에서는 기존의 항만공간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로 재개발 하는 사례가 아직까지 많지 않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항만배후지역까지 포함된 개발이 아닌 항만공간에만 국한된 개발이 시행되고 있다. 그 결과 항만배후지역은 도시계획 및 설계가 반영된 개발이 아닌 항만공간 개발에 따라 밀려나듯이 만들어진 공간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항만배후지역의 거주공간은 과거 전란을 겪으면서 피란민들의 피난처로 활용되었던 공간으로 거주환경 및 인프라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도시는 성장과 쇠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특정

공간이 개발에 의해 성장하게 되면 이면의 다른 공간은 그에 반해 쇠퇴화 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도시공간이 기회와 안락함을 보장하는 행복한 공간인 동시에 가난과 배제와 추방이 진행되는 불행한 공간이란 양면적 사실을 강조한다. 이는 현대의 도시공간 연구자들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양상인 이중도시(Dual City)의 모습을 의미한다.¹⁾

반면 최근 국내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개념²⁾이 도입, 적용될 경우 성장과 쇠퇴현상이 공존하는 이중도시의 모습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현대사회에서 인종, 성별, 성소수자 등과 같이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도시에 대한 권리와 도시를 위한 공공체로서 시민들이 도시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포용도시(Inclusive City)의 개념을 항만 배후지역에 적용하여 모든 사람이 도시의 성장과 쇠퇴에 크게 영향을

1) E.T.van Kempen, "The dual city and the poor: social polarisation, social segregation and life change", Urban Studies, 31-7, 1994, pp.995~1016

2) 스마트 시티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에 U-City 라는 개념이 등장 했었는데, U-City는 도시 전체가 아닌 일부 주거지역에만 기계화, 인공지능화가 적용됨에 따라 계층 간 분리현상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일부 주거단지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기계화, 인공지능화가 아닌 도시 전체에 고루 적용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받지 않고, 동일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공간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바탕으로 현재 부산항에 속하는 남항, 북항, 감천항, 다대항, 신항 중 배후지역에 주거지가 다수 밀집되어 있는 감천항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2. 포용도시 계획요소 구축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으로 다소 낙후된 공간으로써의 이미지가 강한 항만배후지역의 공간적 환경을 개선하고, 성장과 쇠퇴가 반복되는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도시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적 포용성이 증진된 항만배후지역을 위한 도시설계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포용이 함의하는 철학적 내용 중 하나는 권리(right)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인권, 시민권, 행복추구권 등의 일반적 권리가 아닌 “공간적 권리” 개념이다. 이 개념은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가 1968년 그의 저서 『Le Droit a la ville』에서 제시했던 “도시에 대한 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르페브르는 도시를 정치적 개념으로, 권리를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며, 도시 거주자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편의를 누릴 권리, 도시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권리,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스스로 만들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다.³⁾ 이 개념은 이후 데이비드 하비 등의 많은 지식인들에 의해 점차 넓은 의미로 계승, 확산되어 오늘날 2016년 UN-Habitat III의 의제로 검토될 만큼 그 공감대가 넓어졌다. 전술한 바와 같은 배경 속에서 등장한 공간적 포용의 지표로 바탕으로 공간적 포용성 증진을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Table 1 포용도시 계획요소⁴⁾

구분	내용
공공공간 안전	1. 보행자 중심의 가로등 설치 및 적절한 조도 선택 2. 녹지계획시 은폐공간 지양 3. 감시가능성, 시야확보를 위한 가로변 환경정리 4.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시설물 및 바닥재 설치 5. 교통정문화 기법을 통한 안전성 확보
보행 및 교통안전	1.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2. 초등학교 및 어린이 보호구역과의 보행안전 확보 3. 교통약자의 보행속도를 고려한 횡단보도 신호체계 확립 4. 보차분리가 적용된 설계 5. 대중교통시설의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 6.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주거지 안전	1. 중,저소득층 주거단지 내 도시방재시스템 구축
	2. 중,저소득층 주거단지 내 안전성 확보를 위한 CPTED적용
	3. 중,저소득층 주거단지와 공원, 녹지, 수변 등과의 접근성 확보
	4. 중,저소득층 주거지와 근거리 내에 복지 인프라 구축
	5. 중,저소득층 주거지와 공공시설, 근린생활 시설의 접근성 확보
	6. 공공 및 교육시설의 확충 및 이용 활성화

3. 항만배후지역의 공간적 포용성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도출

본 절에서는 앞서 도출한 공간적 포용도시 계획요소 중 감천 항만배후지역의 포용성 증진을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정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PLS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는데, PLS회귀분석은 다중회귀분석과 유사한 분석방법이지만 특정한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보다는 향후의 모습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과 달리 요소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관측치의 수가 많지 않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포용성 증진을 위한 요소가 특정한 공간 즉, 감천 항만배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예측되었고, 포용성이라는 개념이 아직까지 국내에 활발하게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보다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충분한 관측치를 확보하는데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감천항 항만배후지역의 포용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포용도시 계획요소에 대한 만족도 도출을 위하여 PLS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4. 결 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포용성이 증진된 항만배후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성 제시를 위하여 도시설계적 요소를 활용하였다. 즉, 본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활발하게 적용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포용도시 개념을 바탕으로 항만배후지역의 공간적 포용성 증진을 위한 도시설계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성장과 쇠퇴가 공존하는 도시 내에서의 점차 심해질 수 있는 공간적 분리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3)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책세상

4) 손지현, 김중구, 황선아, “포용도시 계획요소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2016, 51(6), pp.5-21

도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위한 도시설계적 방향성을 제사하였다는데 있어서 타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7년도 「BK21 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참 고 문 헌

- [1] 박인권, 2015. “포용도시: 개념과 한국의 경험”, 「한국공간환경학회」, 25(1):95-139
- [2] 오용준 외, 2012.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3(4):51-64